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설 명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12.16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조 한 선 팀 장 (02-3145-7466)

제 목 : 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을 평균 15%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[서울신문 12.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서울신문은 12.16일 「금융당국 “실손보험료 15% 인상, 차보험료는 인하” 가닥」 제목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은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을 평균 15%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을 평균 15%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